

164cm ‘작은 거인’ 꿈 쑥쑥



프로야구 최단신 KIA 신인 김선빈

시범 경기 타율 0.363 연일 불꽃타

‘작은 거인’을 꿈꾸는 KIA타이거즈의 신인 김선빈의 도전이 시작됐다.

19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SK 와의 시범경기에서 0-1로 끌려가던 KIA는 5회

말 김선빈의 마법 같은 결승타로 3-1로 승부를 뒤집었다. 김상훈과 김종국의 연속 안타로 1사 2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9번 타자 김선빈은 중전 안타로 주자를 모두 훔으로 불러들여 2타점을 올렸다. 시범경기 6타점으로 팀 1위에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김선빈은 흠에 악성구가 된 틈을 타 3루까지 질주해 이종범의 안타에 흠까지 밟았다.

화순고 출신의 내야수 김선빈은 키가 작다. 우리나라 여성 평균 키보다 조금 큰 164cm 프로야구 최단신 선수지만 본인 스스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프로야구 선수입니다”라고 말할 만큼 키에 대한 컵플렉스는 없다.

그래도 키가 큰 선수에 비해 불리한 점이 더 많다. 작은 키를 만회하기 위해 김선빈은 다른 선수보다 더 높이 뛰어야 하고, 더 부지런히 달려야 한다.

김선빈은 실력에 비해 한참 모자란 키 때문에 프로 구단들의 눈길을 끌지 못해 입단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2차 6지망으로 가까스로 KIA의 선택을 받은 김선빈은 3천만원의

계약금을 받는 데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김선빈은 시범경기 내내 주전으로 나서 2루와 유격수를 오가며 자신의 전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타율 0.363으로 매서운 타격은 물론, 빠른 발과 집중력을 통한 폭넓은 수비도 신인임을 감안하면 합격점이다.

팬들은 밤이 빠르고 부지런한 김선빈을 ‘날쌘돌이’라고 부른다. 심글싱글 눈웃음과 엿된 모습으로 원조 ‘날쌘돌이’ 이용구에 이어 팀의 미스코트로도 급부상하고 하고 있다.

감독과 코치진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김선빈에 대해 물어 보면 코치진 모두 한결 같이 “예뻐 죽겠다”고 말할 정도다.

김선빈은 상무에서 군복무중인 유격수 손시현을 좋아한다. 170cm에 차이지 못하는 손시현은 단신의 어려움을 딛고 프로 야구의 손꼽히는 유격수로 우뚝 섰다. 김선빈도 타고난 야구감각과 투지로 작은 선수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 시범경기 아닌 진짜 프로무대의 데뷔를 꿈꾸며 그라운드의 ‘날쌘돌이’는 멈추지 않는 질주를 선보일 것이다.

한편 19일 KIA는 김선빈의 결승타로 3-1로 3연승을 이어갔고, 한화는 대전구장에서 벌어진 우리와의 경기에서 4개의 홈런포를 앞세워 8-3으로 승리했다. 두산은 잠실구장에서 4-0으로 삼성을 제압했다.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롯데와 LG의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왕기춘, 이원희 넘고 베이징 갈까

유도 73kg급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우승 ‘유리한 고지’

유도 국가대표의 ‘황금 체급’으로 불리는 남자 73kg급에서 2008 베이징올림픽 태극마크를 달 선수가 누가 될 지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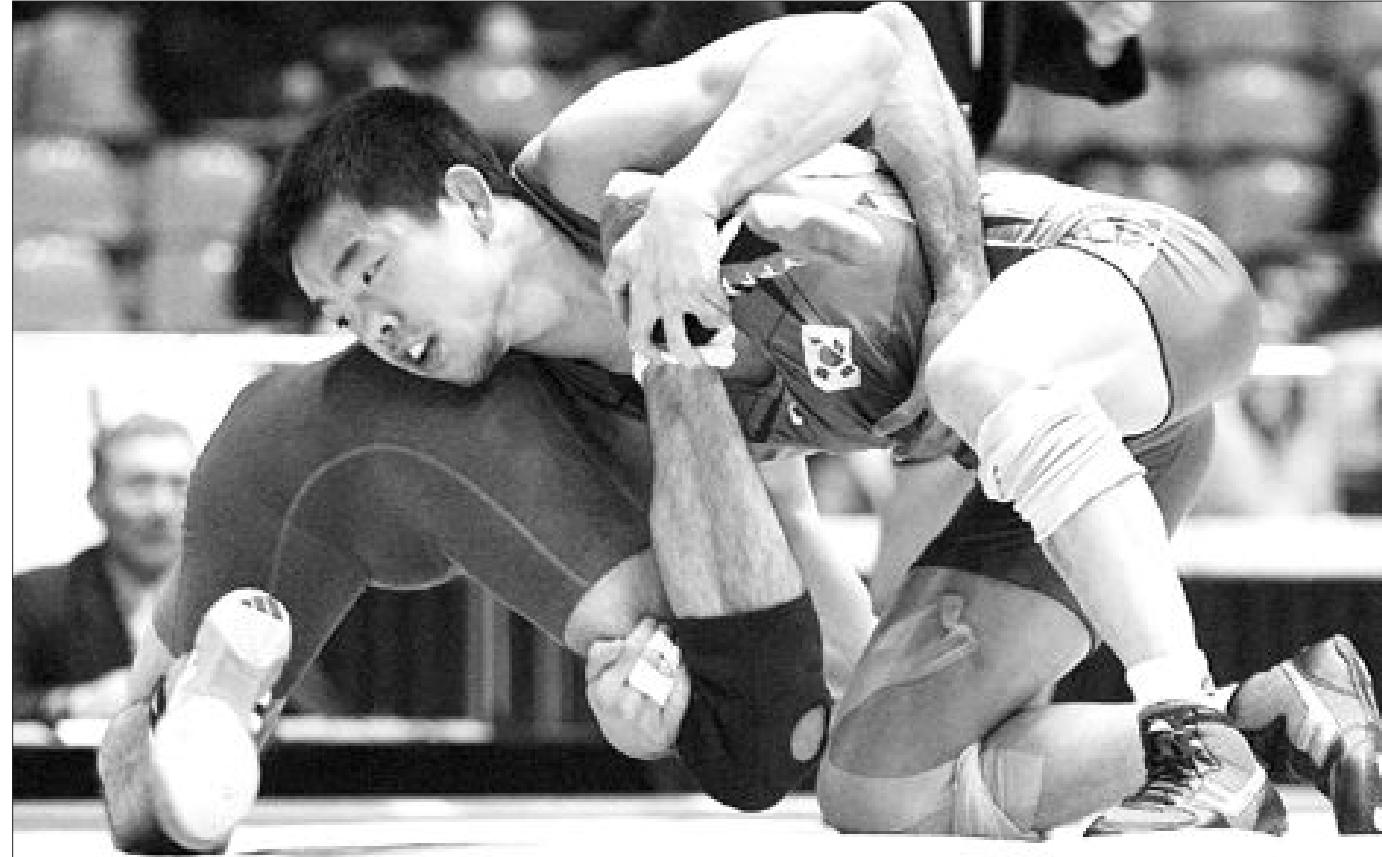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27·한국마사회)가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자리를 굳히는 듯 했지만 무수한 도전자들이 이원희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김재범(23·한국마사회)이 2005년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이원희를 밀어냈다.

김재범이 지난 해 10월에 81kg급으로 체급을 변경했지만 이번엔 ‘겁없는 신예’ 왕기춘(20·용인대)이 등장했다. 지난 해 3월에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원희와 김재범을 연파하며 ‘신데렐라’로 떠오른 왕기춘이 9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유도 팬들에게 확실히 이름을 알렸다.

국가대표 2차 선발전까지 끝난 현재 이 체급에서는 왕기춘이 올림픽에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18일 열린 2차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왕기춘이 대표 선발 접수 15점을 보태 총점 48점을 뒤졌다. 왕기춘이에 결승에서 폐한 이원희는 38점을으로 10점 뒤져 있다. <본보 19일자 보도>

이제 남은 관문은 5월에 열리는 최종 선발전이다. 최종 선발전에는 선발 접수가 많이 걸려 있지만 이원희가 뒤집기는 쉽지 않다. 우승에게 30점을 주어지지만 2위를 해도 24점을 얻기 때문에 왕기춘이 결승에나 나가도 접수에서 1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원희가 최종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할 경우 변수가 있다. 대한유도회 강화위원회에서 올림픽에 나갈 선수를 결정하게 된다. 강화위원회 접수 10점, 코칭스태프 접수가 10점이 남아있어 최종 선발전에서 이원희가 우승을 하면 극적인 역전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19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08 아시아 시니어 레슬링 선수권대회 자유형 55kg급에 출전한 안재훈이 예선전에서 시리아 선수의 발을 잡아 공격하고 있다. 이번 대회 우승자에게는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진다. /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 (02) 223-1140, 520-10 원 011-612-2532
(광주은행 신한점원, 대인동 소방서간너)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 (02) 458-5805 원 011-804-6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사거리)

★ 급매매 ★

- 첨단 안평 비아동 일반주거 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목욕탕, 복지실버시설
- 첨단중심상업지역 200평, 평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

첨단중심 상업매매

· 정부자본사업 200평 규모 지 314평
부영·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비트미트 호수공원 부근 유동지역 100평

첨단월동 건물 매매

· 대6 건145 월통17 쓰리풀1개
보7000만 원 495만 원 5억3천평
· 대70 대10평 월통15

첨단중심 상업매매

· 정부자본사업 200평 규모 지 314평
부영·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비트미트 호수공원 부근 유동지역 100평

첨단 인근 녹지 금매매

· 신기동 부영A 부근
생신녹지 900평

인천동, 비아 증홍A 부근

생신녹지 900평

도천동, 광남 8번지 부근 450평

700평 광장, 청고 적합

북구 지4동 30m도로 인근 전후면 도로접 기든, 찾침, 창고, 광장 적합

145평, 140평

기든, 찾침, 창고, 광장 적합

145평, 140평

고흥조선소 버스터미널옆

1300평, 평당 50만원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 (061) 833-6669
원 010-8004-6669

첨

- 완도개인독설

별장·농장 등.

다용도개발 가능

한필지 6천 200평

(마을앞)

평당 20만원.

(교환 가능)

고흥비단가 매실밭 1300평

가든·별장부지 평당 5만원

고흥농장 부지최적 3천평

차량진입 가능, 평당 2만원

상가부지.

고흥조선소 버스터미널옆

1300평, 평당 50만원

금보부동산컨설팅

☎ (02) 811-8949 원 011-601-2223
(신수동 543-51 (두암타운리운구 상가))

▶ 토지매매

· 나주시 만전지역에 15.55평 면적으로 있을 광장부지 3층 목재주택

· 청구원정 주민자치회 소 194-1 면적 20,600평

· 대구 동성동 760m² 면적 28.555m² 국토부면적증명부 대대 19,000평

· 대구 국대동 주거지역에 427.11평대 197,000평

· 대구 동성동 주거지